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0년 7월)

* 서면 제출일 : 2020. 7. 16.(목)

* 총원 15명 중 9명 참여

* 참여 위원 : 강부원, 김요수, 김태진, 김형순, 류한호, 박미자, 이정권, 임철원, 최영태(9명)

* 시청자위원회의 의결로, 2020년 7월 시청자위원회 월례회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대면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 의견 제출로 대신함

□ 강부원 위원

-2020. 7. 2. 방영된 <오매 전라도>의 “광주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대책은”이라는 한 꼭지에서 시청 건강정책과 과장을 인터뷰 중 사무실로 카메라가 들어가 내부 사무실을 찍어 보내는데, 관련 화면도 아닌 화면을 그것도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 정경을 보내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면이 흔들리고 너무 왔다갔다해서 인터뷰에 집중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사무실 장면이 인터뷰 내용과 관련된 것도 아닌데 인터뷰 중간에 탐사 보도 하듯 사무실이 찍히는 게 너무 어색했습니다.

물론 필요한 자료화면이라면 인터뷰 도중에 나오는 게 인터뷰 내용을 받아 들이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별 상관이 없는 화면이 계속되었다는 게 문제인 듯합니다. 비단 위 일자뿐만 아니라 <오매 전라도>의 인터뷰 방식이나 화면 구성이 그런 듯한데, 제 입장에서는 편안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카메라가 너무 흔들려서 산만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얼씨구당> 42화를 보면 자막이 너무 많았습니다. 필요한 자막이면 좋겠으나 출연자의 말을 자막방송 수준으로 다시 쓰고 있습니다. 비단 <얼씨구당>의 문제만은 아닌 듯합니다. 모든 방송에서 자막이 과용되는데, <얼씨구당>이 특히 심한 듯 보입니다. 자막을 너무 많이 쓰니 출연자의 말을 자연스럽게 듣기가 어려웠고, 자막이 지속적으로 나와 답답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얼씨구당>의 자막 문제도 위 42화에 한정되는 문제는 아닌 듯 했습니다.

□ 김요수 위원

-뉴스 속에서 문화 이야기를 해주는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팀장, 이번에는

총장로의 역사로 남은 상인들 이야기책 ‘오래된 가게’를 소개했고, 광주문화재단에서 오래 진행하는 ‘광주학 콜로키움’이야기를 들려줬다. 어느 방송이나 문화를 알려주는 꼭지가 드문데, 광주MBC는 라디오 프로그램인 <사람이 좋다 문화가 좋다>가 있고, 뉴스 속 문화 이야기인 ‘이슈인-문화’가 있어서 좋다. 간혹 ‘문화중심 도시’는 말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

-7월 17일 <난장>, 코로나 극복 콘서트 같은 느낌, 어려운 가운데 가수들이 설 무대를 마련하고, 적지만 관객의 호흡도 함께 하는 귀한 콘서트, 음악 중심으로 진행되니, 개인적으로 참 좋다. 현장의 느낌이 그리운 시간이 된 콘서트, 신인 유지선 발굴 프로젝트에 ‘불고기 디스코’가 소개되었는데, 완곡을 듣지 못한 아쉬움

□ 김태진 위원

-최근 광주지역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코로나 관련 뉴스에 많은 시민들이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 뉴스를 발 빠르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집단감염의 중심지 중 하나가 된 금양오피스텔 관련해서 자가격리를 감수하고 취재를 해주신 기자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드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와 관련된 많은 소식 발 빠르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역MBC 공동기획 <자치분권대학특강 스페셜>

지난 9일 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사망한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망 소식이 알려질 때쯤 광주MBC에서는 지역MBC 공동기획 <자치분권대학특강 스페셜> “자치분권으로 꿈꾸다”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박원순 前 시장이 나와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비보가 전해진 직후 방송 화면을 캡처해서 SNS에 공유한 분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꾼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지만, 오후 내내 관련 사건이 이슈가 된 만큼 급하게라도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광주MBC의 신뢰도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더해진다면 더욱 신뢰받는 광주MBC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김형순 위원

-최근 들어 갑자기 광주시에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여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제가 최근 다른 지방을 둘러 본 바로는, 광주가 좀 너무 방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지역은 QR코드, 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다양한 일상생활 속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는 반면 광주에서는 너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현장을 빈번히 목격하였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주말 풍경은 지금이 코로나 생활 방역 기간인가 싶을 정도로 심하다는 생각입니다. 당분간 MBC가 좀 더 밀착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 방역 지침준수 여부를 관찰하고 계몽하는 활동을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을 위해 외부활동을 하지 않을 수는 없고, 앞으로는 코로나 함께 지내야 하는 기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생활 속 방역지침 준수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류한호 위원

-2020. 6. 21. 광주제2순환도로와 맥쿼리 판결 관련 토론

시민들이 궁금해할 사안에 대하여 최회용 참여자치21 전 대표가 전문가로 출연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함. 해당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출연자가 비교적 알기 쉽게 설명한 유익한 프로그램

-코로나19 관련 보도와 시사토론. 잘 되고 있음. <김낙곤의 시사본색>에서 코로나와 그린뉴딜을 주제로 토론하면서 주로 환경 중심으로 접근함으로써 그린뉴딜을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소홀히 한 듯한 느낌이 있음. 그린뉴딜이라는 주제는 일반론보다 광주 전남의 관점에서 지역에 어떤 영향이 올 수 있고, 지역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홈페이지 뉴스 검색 불편

찾고자 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다. 백운고가를 검색하니 결과가 2005년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민주당을 검색하니 2007년, 2004년 정보가 뜬다. 최근 것은 찾아볼 길이 없다. 검색 결과를 확인하고 클릭을 하면 미디어클립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링크가 안 된다는 것, 아니면 불편하다는 것. 그리고 검색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임. 검색 결과를 시간순이나 정확도순 등 세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개편해야. 홈페이지 제작업체나 관리업체의 실수일 듯

□ 박미자 위원

-광주MBC 뉴스의 시청률이 높아진 이유는 시청자들의 신뢰감 회복이라고

생각한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시청자들은 금방 외면하게 된다. 7월 아침, 저녁 광주MBC 뉴스를 보며 시청률이 궁금해졌다. 뉴스는 시청자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생명이다. 하지만, 연일 문자로 전달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나 검사자 수, 자가격리에 대한 수치적 전달뿐 코로나에 대한 심각성, 또는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통해 앞으로의 대비 등 좀 더 고민한 흔적이 보였으면 한다. 물론 뉴스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수치적 전달밖에 될 수 없음은 이해 하지만 뉴스를 통해 얻는 감동과 보이지 않는 곳의 이야기들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젠 광주도 점점 코로나19의 피로도가 쌓여간다. 이럴 때일수록 희망적이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격려가 되는 소식들이 필요하다. 뉴스에 단골로 나오는 사건사고보다 훈훈한 이웃의 소식이 더 간절히 기다려진다.

한가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소식이 전해지던 때에 광주MBC에서는 당사자인 박원순 시장이 나와 강의를 하고 있던 때다.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할 때 화면에 나오는 시장님의 모습을 보며 너무나 당황스럽고 황당했었다. 물론 정해진 프로그램이었지만, 자막으로라도 실종 소식이나 그에 따른 속보 정도는 나왔어야 한다는 점과 다음 날 아침에도 전혀 관련된 소식은 없었다. 현재 최대의 관심사이며 아침에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뉴스를 통해 궁금해하고 있었을 텐데 정해진 소식으로 일관하는 뉴스를 볼 때 실망스러움이 들었다. 언론이나 방송은 권력이나 힘의 논리보다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과 정확한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지점에 더 매력을 느낀다. 그 누구의 눈치보다 사실을 말할 수 있는 방송, 광주MBC에게 거는 기대이기도 하다.

-연일 코로나19로 인한 뉴스나 문자로 지쳐있는 시청자들에게 잠시나마 휴식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뉴스에서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의 코로나 관련 내용이나 이웃의 사연들이 소개되며, 특히 재난지원센터나 심리지원센터 소개 등은 시청자들에게는 반가운 정보였다. 특히 광주를 벗어나 고흥이나 통영의 음식점과 관광지들 소개는 중앙방송인가 싶을 정도로 퀄리티가 높았다. 밝고 경쾌한 무대와 진행자들의 편안한 멘트 그리고 곳곳의 신선한 정보들이 하루를 마감하는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들이다.

□ 이정권 위원

-지역의 넘치는 매력을 재발견하고 화제의 현장과 유익한 정보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지역을 알리는 프로그램 홍보 효과와 지역사회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저녁시간 프로그램으로 접근성이 좋다. 전라도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정보도 제공 기회 부여하고 있다.

다양한 시청자를 겨냥한 콘텐츠 부족하다. 최근 6월 광주시 오매나 캐릭터 방송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콘텐츠 부분에 캐릭터 발굴도 좋지만 방송 컨셉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방법으로 시청자 타격을 일부가 아닌 전체 연령층을 목표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전체 모두가 심도 있는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다. 프로그램은 일부 시청자가 아닌 전체 연령층도 전라도의 특색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임철원 위원

-<코로나와 그린뉴딜 >에 대한 의견

지금 우리 경제의 최대 관심사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정책이다. 코로나 국난극복을 위해 이미 3차례에 걸쳐 추경을 하였고, 코로나 이후의 경제회복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한국판 뉴딜정책을 제안하고 이에 그린뉴딜을 접목하고자 다양한 논의와 절차가 진행되어 7월 안으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코로나와 그린뉴딜”의 주제로 그린뉴딜의 역사와 세계동향, 정부의 정책, 지자체의 준비상황, 향후 바뀌어야 할 제도, 주민수용성 등에 대해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린뉴딜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어 시의적절한 편성이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광주, 전남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패널들의 일반론적이고 추상적인 언급이 많아 아쉬웠다. 사실 “한국판 뉴딜정책”이 앞으로 우리 경제는 물론 지역사회의 미래 먹거리가 결정될 수도 있음을 감안할 때 지자체의 구체적인 사업과 준비상황,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하여 시청자들이 우리 지역의 뉴딜사업을 이해하고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아울러 토론이 광주를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전남도의 그린뉴딜사업이 훨씬 야심 차게 준비되고 상황을 감안할 때 아쉬움이 남는다.

□ 최영태 위원장

-7월 15일 내용 중에 <코로나로 잃어버린 평범한 날들>이라는 주제 아래 세 유형의 내용이 소개되었다. 첫 번째 내용은 세 명의 초등학생 아이를 가진 주부가 아이들을 뒷받침하는 내용, 그리고 학생 세 명이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하는 장면 등의 소개였다. 두 번째 장면은 택시 기사가 손님을 맞이

할 때의 두려움, 그렇지만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택시 내의 방역 준비 내용 등을 소개했다. 세 번째 내용은 양동시장 아주머니를 인터뷰하면서 한적한 시장의 모습, 어쩌다 찾아온 손님을 접대하는 모습이였다.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일상적 삶을 심층 취재한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오매 전라도> 프로그램을 보면 광주·전남 지역을 소재로 한 내용과 다른 지역을 소재로 한 내용이 함께 나온다. 혹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광주·전남 지역 분량과 다른 지역 취재 분량에 일정한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그때 그때 유연하게 임하는지 궁금했다.

-7월 10일 뉴스에 <광주시의회 상임위원장 선출-민주당 일색>이라는 타이틀을 단 뉴스가 나왔다. 내용은 의장, 부의장, 4개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으로 채워졌다는 것이 주였다. 전체 의원 23명 중 민주당이 21명, 무소속 1명, 정의당 1명이기 때문에 시의회 지도부가 민주당 의원으로 채워진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따라서 뉴스 내용은 민주당 일색이라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의원이 민주당 일색이다 보니 지도부도 민주당 일색으로 구성되었다고 평하든가, 혹은 민주당 내 주류와 비주류 간 이견으로 지도부 구성이 늦어졌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 더 합리적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봤다.

7월 11일 뉴스데스크에도 <광주시의회 상임위원장 선출-민주당 일색>이라는 타이틀 아래 뉴스가 나왔다. 뉴스 타이틀이 10일 뉴스 타이틀과 똑같은 데다가 내용은 “광주시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하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라고 단 한 줄밖에 없었다. 7월 10일 뉴스를 타이틀만 반복한 셈이었다. 실수였는지, 아니면 시청자들에게 중요한 내용이라 반복 주지시키려고 일부러 그런 것인지 궁금했다.